



사단법인 | 국제기아·질병·문맹 퇴치기구

한국제이티에스

Join Together Society <http://www.jts.or.kr>



표지사진 : 지난 4월 20일 북한 농업지원을 위한 비료와 어린이 영양제를 부산항에서 선적하는 모습

JTS 통권 47호 2004년 5·6월

펴낸날 : 2004. 5. 1

펴낸이 : 유 수

만든이 : 이지현

도운이 : 김애경, 최양희, 김경희, 류희원,
최정연, 이미경, 김희수, 송하경,
윤미옥

펴냄터 : (사)한국제이티에스

주 소 :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도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587-8756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ts.or.kr

인터넷 : www.jts.or.kr

인도 등게스와리 소식

4 제 친구, 레시미 데비를 아시나요?

지금 북한에선

8 라선시의 진료소를 방문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소식

12 모래바람부는 사막의 칸다하르에서 뛰노는 아이들

따뜻한 이웃

14 모금활동은 제 생활의 일부입니다.

후원의 소리

16 살아있는 모든 것은 행복하라

활동보고 및 안내

18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북한 지원 사업

아프가니스탄 지원및 현지활동

국내사업

22 신규회원(개인, 단체) 명단 및 물품지원

24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및 거리모금 현황

26 라진·선봉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8 JTS 소개 및 후원물품 목록

30 따뜻한 손길

제 친구, 레시미 데비를 아시나요?

최지혜 | 인도제이티에스 자원봉사자

추위 때문에 해가 하늘 높이 떠오를 즈음에 찾아오던 우리 결핵 환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병원 문 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니, 아주 조금씩이지만 날씨가 더워져 오고 있나봅니다.

매일 오는 환자들은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더우면 한낮의 더위를 피해서 일찍 찾아오고, 추우면 새벽의 찬 공기를 피해서 늦게 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을 기다려야하고 때로는 그들의 미중을 받기도 합니다. 그 기분은 항상 다르지만 어찌된 양인지 저는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들이 '나마스떼' 하고 인사하며 저를 맞아주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그런 환자들 가운데 항상 저를 기다리게 만드는 환자가 있습니다.

레시미 데비. 제 나이 또래의 참하게 생긴 아줌마입니다. 그녀의 집은 병원에서 아무리 천천히 걸어가도 10분이면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 영양식을 먹으러 오는 환자입니다. 하지만 약을 타러오는 금요일에는 무슨 큰 일이라도 있는지 병원에 오지 않고 약을 집으로 배달시키곤 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거의 매일 가장 늦게 나타나서 영양식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 슬픈 얼굴을 하고선 무언가를 요구하는 표정을 짓곤 합니다. 일찍 와야 영양식이 있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 주어도 그때만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늦게 나타나서 제 애를 태우곤 합니다.



레시미 데비

그녀는 바블루라는 아들까지 데리고 옵니다. 서너 살쯤으로 보이는 바블루는 제가 이곳 지바카 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항상 콧물을 달고 다닙니다. 그렇게 누런 코를 입술까지 줄지어 놓고도 자기 이름을 부르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녀가 병원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째 영양식을 먹으려 나타나지 않는 그녀가 어김없이 약 타는 날을 빼먹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약을 제대로 챙겨먹지 않는 그녀에게 호되게 잔소리도 하고, 오랫동안 레시미 데비랑 수다도 떨어볼 양으로, 지난 금요일 제가 직접 그녀의 집으로 약 배달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녀의 시어머니 말씀이 지난 일요일 술 취한 남편에게 맞고 쫓겨나서 친정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보이지 않은 게 하루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한 주일이나 흘러간 것입

니다. 매 맞고 친절으로 갔다는 말에 가뜩이나 씩씩한데 같이 갔던 병원 스텝의 말이 그녀의 남편은 술을 좋아하는데 술만 마시면 그녀를 때린다고 합니다. 그럼 그동안 병원에 와서 매일같이 어깨가 쑤신다, 등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등 여기저기 안 아픈 곳 없이 다 아프다며 바르는 약을 달라고 조르던 것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남편에게 맞아서 아팠던 것인가 싶어 되가져오는 약의 무게가 한없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레시미 데비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친정집에서 잊지 않고 약을 타려고 그 먼 길을 아침부터 걸어서 왔답니다. 아침나절 약 타러 오지 않는다고 잔소리해야겠다 던 제가 부끄러워지기도 한순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며 눈물 젖은 그녀의 손을 끌어다 안혀놓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핵환자인데다 몸이 약해서 일도 많이 못한다고 남편이 싫어했었는데 급기야 지난 일요일 밤에 다른 여자를 얻어다 아내를 삼을 예정이니 병든 너는 집을 나가라고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소박을 맞은 것입니다. 거기다 두 아이까지 쫓아냈다고 그녀는 울먹입니다. 그나마 여기 살면 병원에 매일 와서 우유라도 마시고 계란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 자신의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친정집은 병원에서 너무 멀고 가난해서 하루에 한 끼를 먹기도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미움을 받아도 이곳이 더 좋다고 말하며 또 울먹입니다.

레시미 데비는 어쩔 저보다 어릴지도 모릅니다. 한국에서라면 우리 또래처럼 자신을 가꾸는데 열중할 것이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입니

다. 하지만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이고, 빼빼 마른 결핵 환자입니다. 여느 결핵 환자들처럼 저에게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니 조금은 특별합니다. 그녀에게는 제가 꿈꾸는, 그리고 생활했던 삶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 하루에 한 끼를 잘 챙겨먹고, 아이들이 잘 먹기를 바라고, 남편에게 쫓겨난 것이 서럽기만하고, 남편 곁에서 살고 싶은 아줌마입니다. 동계스리의 보통 아줌마입니다.

결핵환자 가운데는 우리 동네가 친정인 아줌마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들의 속사정도 레시미 데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병이 나오면 돌아오라며 쫓겨나다시피 친정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이곳이 친정인 사람은 다행입니다. 친정에 와서 치료라도 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지 못한 얼마나 많은 아줌마들이 그렇게 버려지고 있을지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적어도 아픈 것이 죄가 되지는 말아야 하는데 이곳 동계스리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떡해야 그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을까요?

지바카 병원이 레시미 데비 같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 자리 잡고 커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결핵환자들이 이 곳에서 영양을 공급받고 약을 복용하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바카 병원에서 동계스리 100여명의 결핵환자들에게 약과 식사를 제공하는 결핵퇴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한명을 검진하고 6개월간 치료약과 하루 한끼의 식사를 제공하는데 15만 원이 사용됩니다. 한 생명 살리기에 동참해주세요.

라선시의 진료소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제이티에스 해외사업본부장인 박지나님이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라선시를 방문했다. 일행에는 방학봉님(전 연변대학 교수역임)과 의사인 전순금님이 함께 동행했다. 다녀온 소식을 박지나님께 들어본다.

▶ 2월에 이어 곧바로 3월에 라선시를 방문하셨는데, 이번 방문 목적은 무엇입니까?

진료소 시설 개선 및 의료기기와 의약품지원을 위해 전문가와 함께 진료소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탁아소와 유치원을 둘러보고 기타 라선시 시내버스 운영 가능성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 제이티에스의 새로운 사업으로 라선시 진료소 50여 군데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둘러보신 진료소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먼저 라선시에서 담당자와 만나 1시간 가량 면담을 했는데, 제이티에스에서 꾸준히 라선시를 도와주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희가 둘러본 곳은 해양 진료소와 굴포리 인민병원, 백학리 종합진료소입니다.

규모가 작은 해양 진료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명씩 있는데 간단한 처치 정





혈압계를 지원하고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모습

도의 수술도 하고 해산(출산)까지 돕는다고 합니다. 주민 약 1400명 정도를 담당하는데 왕진도 간담니다. 환자는 하루에 주사환자까지 포함해서 40여명 정도 보는데, 주사기는 1회용을 소독해서 2~3회 정도 사용하고 나면 마모돼서 더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굴포리에 있는 인민병원은 의사 4명에 간호사 1명이 3300여명의 주민(왕진포함)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하루에 30명 정도로 주로 소화질병과 감기, 만성위염, 균이 없는 결핵 등의 환자를 치료하고 소파, 중절 등의 급한 것은 군에 보낸다고 합니다.

이곳 입원실과 처치실은 모두 썰렁하고 추워서 여기서 어떻게 환자를 치료하나 싶을 정도였어요. 또 환자들에게 필요한 주사기는 환자가 직접 사 와야하고, 약은 거의 80~90%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백학리 종합 진료소는 규모가 큰 곳이었는데, 주민 8700명을 대상으로 의사 12명, 준의사(한의사)3명, 간호사 2명이 하루 140명 정도 치료하는 곳입니다.

수술은 전혀 하지 않지만 간단한 응급처치 수술정도 하고 주요 질병은 폐렴, 기관지염, 위장. 대장염, 심장, 뇌출혈, 등이고 노인들의 70%가 뇌출혈과 뇌혈중으로 사망하며 당뇨병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또 임신중인 여성과 신생아 관리를 매우 철저하게 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농촌과 공업지역이 결합된 지역이라 봉사 반경이 넓어서 환자 치료를 기동성 있게 하려면 구급차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 세 곳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품목들은 주로 항생제, 포도당, 아스피린, 감기약, 비타민제, 지혈제, 이노제, 신경통약, 링겔, 현미경, X-레이 기계, 혈압기, 청진기, 체온계, 주사기, 소독기, 탈지면, 거즈 등 매우 기초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매우 세심하게 조사를 하셨군요. 그럼, 앞으로 라선시 진료소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계획입니까?

제이테에스에서는 라선에 있는 50개의 농촌 진료소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선방문 후지원 원칙을 지켜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방문한 세곳을 포함하여, 진료소를 한곳 한곳 모두 참관한 후에 각 진료소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필요한 의료기재와 상용약품을 지원할 것입니다.

▶탁아소 방문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소식이 궁금합니다.



라선 탁아소, 해양 탁아유치원, 굴포리 탁아소, 굴포리 유치원, 백학 탁아소를 방문했는데, 영양식과 이유식은 하루 두 끼 오전 오후 새참으로 잘 먹고 있고 아이들의 상태는 대체로 양호했습니다.

난방은 석탄이나 나무를 쓰고 있었는데, 해양 탁아유치원의 경우 3월의 쌀쌀한 날씨에 온기가 거의 없는 곳에서 아이들이 지내고 있어서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장판과 복도도 낡아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풍금은 40년이 되어서 사용할 수 없었고 아코디언도 아주 낡아있었습니다.

▶지난 4월 20일 북한에 비료와 비닐을 보냈다고 하는데, 농업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난 7년간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라선시 협동농장 400정보에 영농기술 및 농자재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수확량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도 쌀농사를 짓는 홍의농장, 굴포농장과 옥수수를 농사를 짓는 웅상농장, 굴포농장, 콩을 재배하는 조산농장에 복합 비료 100톤, 요소비료 150톤, 농업용비닐 18톤등 총 270톤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엔 처음으로 수확량 중 옥수수 30톤을 받았습니다. JTS영양식공장에 보관중인데, 이와 같이 앞으로도 생산량의 일부를 받아서 탁아, 유치원 어린이 영양식을 만드는데 쓸 예정입니다.



북한에서 수확량 중 일부로 받은 옥수수

▶그밖에 더 둘러보신 곳이나 합의한 사항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요.

현재 북한에서는 산림이 많이 황폐화되어 있어서 묘목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학리에 있는 백학 양묘장을 방문했는데 5~60정보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카시아, 이깔나무, 잣나무가 심어져 있었는데, 온실에서 1년정도 키워서 밖에다 심고 1~2년 지난 후에 다시 산에다 심는다고 합니다. 이런 종류들은 북한의 기후에도 잘 맞고, 나무 껍질이나 목재로 등 여러 방면으로 쓸 수 있어서 좋은데 좀 더 품질이 좋은 종자를 필요로 하더군요.

그리고 이번 방문으로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라선시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습니다.

박지나 이사님의 진료소 방문 인터뷰를 정리하면서 북한 룡천역 폭발사고를 접하게됐다. 대형사고에 수많은 동포들이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고 또 구호물품을 기다리고 있을터다. 진료소내의 열악한 의료시설과 기구, 턱없이 부족한 약품들... 가슴이 아팠다. 동포들의 따뜻한 나눔이 절실한 때다.

취재·정리 | 자원봉사자 고정희

JTS는 용천역 대참사에 의약품과 의류, 생필품을 긴급 지원했으며 계속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비누, 수건 등 생필품과 후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 484201-01-000585 예금주 : (사)한국JTS

모래바람부는 사막의 칸다하르에 뛰노는 아이들

이선주 | 아프가니스탄 JTS 소장

안녕하세요.

저는 그동안 주로 칸다하르에 내려가 있다가 며칠전 카불에 막 올라왔습니다. 카불은 4월인 요즘 한참 봄기운이 돌고 있어 아름다운 꽃들과 푸른 새싹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고 칸다하르는 이른 여름날씨라 조금은 덥습니다. 칸다하르 시내에서 텐트학교가 위치한 판즈웨이 캠프촌 까지 약 1시간 30분 거리의 길 양옆의 포도밭과 양귀비밭은 하루가 다르게 푸르름이 짙어갑니다.

지난 3월말에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나눠주었습니다. UNICEF에서는 나눠줄 교과서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카불에서 교과서를 직접 인쇄했습니다. 나눠주기 전에 아이들 상태도 확인 할 겸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을 읽을 수 있는지 한 학생씩 시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학교를 시작 할 때 나눠준 세파라(코란의 첫 단계로 아이들이 글을 배우면서 읽는 책)를 매일 큰 소리로 읽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모두들 읽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우리의 상상과는 다르게 파슈툰 알파벳을 아는 아이들이 40% 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세파라 책 전체를 그냥 외우는 것이였습니다. 알파벳을 아는 학생들에게만 교과서를 나눠주고 2주후에 다시 시험을 쳐서 그때 다시 나눠주겠다고 약속하고는 2주 후에 다시 시험을 봤더니 코흘리게 아이들 빼고 대부분 알파벳을 외워서 교과서를 받았습니다. 신기하고 고마웠습니다.

더욱이 교과서를 나눠주면서 축구공과 배구공 배구넷 등을 각 학교마다 나눠주었더니 아이들은 교과서 보다 비스켓 보다 축구공과 배구공을 더 좋아 했습니다.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즐거운 선물은 없나 봅니다.

봄과 함께 아프간을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바람입니다. 1년에



3개월 정도 제일 심하게 바람이 부는데, 멀리 모래를 동반한 바람이 불어 오는 것이 보이면 차를 타고 가다가도 멈추어 서서 창문을 다 닫고 바람이 지나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모래를 동반한 바람이라 아무 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마른 강모래 밭에 위치한 우리의 텐트학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캠프 지도자들과 의논해서 모래가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낮게 벽을 쌓기로 했습니다.

몇일전 4월 13일 드디어 텐트 학교가 칸다하르 주 정부의 교육부에 정식 학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신발과 문턱이 닳도록 교육부를 방문하고 단체들에게 요청했던 결과가 나온 것이지요. 이제 교사나 학생이나 교과서나 문구 등을 제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안정적인 조건이 하나씩 마련되면서 캠프 리더들은 자신들도 1학년이 입학해서 글을 배우고 싶다고까지 합니다. 교과서를 나눠주고 나오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자기 캠프에 여학교를 열고 싶다고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계속 여학교를 하고 싶어하는 분이지만 다른 캠프 리더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수적인 이곳에 여학교는 아직 치안상 위험하다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여학교를 원하면 언제든지 지원할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목민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고 무척 감동했지만, 모래 바람부는 이곳 사막의 칸다하르에도 여학교가 당당히 세워져 글을 가르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모금활동은 제 생활의 일부입니다

조옥분 | 정토회 대구법당 JTS 자원활동가



정토회와 인연을 맺은지 벌써 6년째 접어들습니다.

저는 지방법당에 각 부서가 형성되면서 환경과 관련된 일을 맡아보다가 집안사정으로 직장에 잠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다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무렵 JTS의 세계 어린이 돕기 100일 릴레이 캠페인 및 거리모금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모금에 참여하여 처음엔 일요일 빼고 매일 모금하다가 혼자서 모금하고부터는 쉬는 날 없이 계속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은 주 1회 정도 쉬고 모금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대구역 근처에서 모금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곳에서 생활하다시피 하는 분들과 많이 부딪혔습니다.

장애인 껌팔이, 구걸하는 할머니들, 노숙자들은 자기네 영역에 와서 방해한다며 시비를 걸기도 하고 구두땀이나 장거리 택시기사들은 시끄럽다고 짜증내기 일쑤였습니다. 게다가 철도 공안들은 불법이라며 쫓아내기도 하고 난폭한

노숙자를 만나면 우리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또 저희에게 욕하고 비난하는 분들도 가끔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과 아옹다옹 다투면서 차츰 친구가 되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껌을 팔아주고, 그들도 모금함에 돈을 넣어 주기도 합니다. 친구처럼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만나면 짐도 들어주고 길 안내도 해주고 이렇게 일거리가 다양해졌습니다. 때때로 ‘몸이 아파서, 추워서, 하기 싫어서...’ 등등 이런 핑계가 마음을 사로잡을 때마다 내 마음을 골똘히 살펴보기도 합니다.

제 큰 아이가 첫돌 무렵 한달 동안 우유를 먹지 않아서 제 속을 태웠습니다. 아이가 죽을까봐 얼마나 애를 태웠던지요. 병원에서는 석달을 굶어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지닌 영양분으로 죽지는 않으니 안심하라고 했지만 그때 받은 충격이 제게 가지처럼 박혀 있었나 봅니다.

저는 간접적이거나 제 아이가 굶어서 죽을 뻔한 일을 겪었기 때문인지 굶주리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돌이켜보면 그런 마음이 제가 이런 활동을 하게된 동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모금을 하면서 사람들이 묻는 이야기에 답변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JTS의 활동들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더 꼼꼼히 살피게 되고, 대구에 JTS 실무자들이 오실 때면 궁금한 것들을 많이 질문하게 됩니다.

봉사활동하고 모금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면 환한 웃음으로 기쁘게 보시하는 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감사하게 받는 내가 하나될 때입니다. 그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상 제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정말 고맙고 기쁩니다.

조옥분님은 대구법당에서 굶주리는 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 자원활동가입니다. ‘어쩌다가 모금하면 힘들지만 매일하면 하나도 힘이 안듭니다. 그냥 제 생활의 일부입니다.’라며 수줍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는 목소리에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행복하라

백영미 | JTS 후원자

지난 주에 지리산 실상사에 다녀왔습니다. 조계사에서 하는 귀농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실상사에서 열리는 2박 3일 간의 현장 교육에 따라갔지요.

실상사에는 봄이 와 있었습니다. 해탈교를 건너, 좌우에 늘어선 토산품 노점을 지나, 맑은 봄물이 졸졸거리며 흘러가는 도랑을 내려다보고 걷노라니, 온 몸에 자주빛 꽃망울을 가득 매단 살구나무들이 무심히 물 속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앞에는 모판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었고, 땅에서 불끈 솟아오른 거인같은 삼정산은 노곤한 봄별을 받으며 즐기고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라크에 파병하지 마시오 - 실상사 화엄학림 일동' 이라고 쓴 현수막 앞을 지나 경내에 들어서니, 노란 수선화, 별꽃, 냉이꽃, 벚꽃, 앵두꽃, 명자나무 꽃들이 소박하기 짝이 없는 천년 고찰을 화사하게 장엄하고 있었지요.

그곳, '생태 뒷간' 앞에 서서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실상사 작은학교 아이들이 천왕문 앞에 세워둔 게시판에는, 머리에 붕대를 동여맨 이라크 소년이 울고 있었지만, 울해도 이곳에 무사히 찾아온 봄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실상사 농장공동체 비닐하우스에서 사람들과 함께 곤달비 밭의 김을 땀했습니다. 해발 700미터의 서늘한 고산지대에서 자란다는 곤달비는, 세해 째 비닐하우스 속에서 겨울을 나며 많이도 죽어 있었지요. 화학비료도 농약도 치지 않지만 저희에게 맞지않는 환경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입니다. 그 곤달비들

이 겪은 일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아 마음이 짠했습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인 도시에서, 저도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이 한 두번이 아니었으니까요. 생명이란 것들은 너나 없이 이토록 여리고 민감하니, 그 생명을 키우는데 얼마나 살뜰한 손길이 필요하겠는지요.

그곳에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의 '착각'이 뭔지도 조금은 깨달을 수 있었지요. 시골가서 조그만 땅을 일궈서 자급자족하면 한 달에 30만원만 벌어도 살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다녔는데, 그 정도 수입으로는 생활이 안된다고들 하더군요. 제가 결심한 '자발적 가난'이 과연 어떤 삶이 될 것인지는, 시골에 내려가서 살아봐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귀농을 준비하는 지금, 저는 천지간의 봄이 온통 제게만 온 것처럼 들뜨고 행복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백영미님은 JTS를 통해 북한 어린이 40여명을 후원하고 계신 회원입니다. 현재 남편과 함께 귀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를 통한 짧은 만남이었지만 상대에 대해 세심하게 배려하는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인도지원 및 현지활동

● 수자타아카데미 소식



3, 4월에 학생과 스텝들에게 여름용 슬리퍼 총 459개를, 청소년 노동학교와 기술학교 학생과 스텝들에게 한국에서 지원한 천으로 유니폼 54벌을 만들어 제공하였다. 수자타 아카데미 3학년 학생들은 4월에 라즈길로 수학여행을 다녀왔고, 5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제등행렬과 문화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인도 스텝과 학생들을 위한 5박 6일 숙박교육이 5월 까지 5개 팀별로 진행되고, 6월 초 법륜스님의 지도로 전체 수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 근로자를 위한 퇴직 적립금제도 시작

인도 제이티에스 근로자를 위한 퇴직 적립금 제도가 4월부터 시작되어 목돈 마련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제이티에스 스텝, 교사, 청소년노동학교 학생, 기술학교 학생, 마을유치원교사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제이티에스에선 이들을 도와서 장차 주택개량 등 마을개발 사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지바카 병원 결핵환자 가정방문

지바카 병원은 3월중 결핵환자들의 가정 환경 조사와 규칙적인 약 복용을 독려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했다. 이것을 기초로 세분화된 특별지원을 할 예정이다. 병원 에서 자원봉사하던 최지혜님이 4월 15일 10개월간의 봉사활동을 마치고 회향했다.

● 청소년 노동학교 수자타 기술학교 활동



청소년 노동학교에서는 두르가푸르와 자그디스푸르에 각각 유치원건물을 건축 중이며, 3학년들은 학교 식수대를 만들면서 새로운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수자타 기술학교 학생들은 자동차 엔진, 전기, 목공, 철공 실습을 하고 있고, 5월 중 청소년 노동학교와 함께 파트나로 수학여행을 갈 예정이다.

● 마을에 핸드펌프 설치

자그디스푸르와 두르가푸르 마을에 유치원과 인근 주민들을 위해 각각 핸드펌프 1대씩을 설치했다.

북한 지원 사업

● 北 룡천 열차 폭발 대참사 긴급지원

4월 22일 발생한 북한 룡천역 열차폭발사고의 긴급지원을 위하여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과 이지현 사무국장이 26일 중국으로 출국하여 의약품과 생필품등을 구입하여 룡천 피해지역에 지원했다. 1차 긴급지원에 이어 계속적으로 모금운동을 함께 전개하고 있다.

● 평안섬유공업주식회사(PAT) 의류 11,000여점 북한 룡천에 긴급 지원



평안섬유공업주식회사(PAT)에서 5톤 트럭 2대 분량의 의류 11,000여점을 4월 28일 룡천사고현장에 지원했다. 원래 인도 등지에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참사를 접하고 PAT에서 요청을 해와 적절하게 긴급 지원에 쓰일 수 있었다. PAT는 2003년 2월에도 재활용의류 47,872장을 지원해 주어 아프가니스탄에서 잘 쓰였다. 지속적인 관심에 깊은 감사드린다.

● 통일부, JTS 대북사업에 7억 지원

JTS는 통일부로 부터 남북 협력 기금 7억5백 2십만원을 지원받았다. 자체 지원금 7억8천만원 등 JTS의 2004년 총 대북사업비는 15억원으로 어린이 영양식 지원과 탁아유치원 시설지원, 농업지원, 농지개간 사업, 진료소지원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 라선시에 농업지원을 위한 비료 250톤 및 동아제약에서 지원한 어린이 영양제 지원

지난 3월 22일부터 27일까지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님이 라선시를 방문하여 어린이 영양식과 농업지원, 새롭게 시작하는 진료소 지원사업등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돌아왔다. 4월 20일에는 부산항을 통해 라선시 협동농장 400정보에 벼, 옥수수, 콩 재배를 위해 필요한 비료와 비닐을 270여톤 선적했으며 라선시 탁아,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구충제 4만여정과 동아제약에서 지원한 영양제 돌이박사 39만여정도 함께 지원했다.

아프가니스탄 지원 및 현지활동

● 칸다하르 판즈웨이 IDP캠프의 텐트 학교 교육부에 정식 학교로 등록

칸다하르 IDP 캠프의 텐트학교가 교육부에 4월 13일 정식으로 등록된 것은 그동안

JTS가 6개월간 노력한 결실이였다. 발루치 유목민들 역사상 처음으로 유목민 학교가 교육부에 정식으로 학교로 인가 받으면서 등록이 된 것이다. 이제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할 준비가 된 것이다.

● IDPKAMP의 텐트학교에 JTS가 제작한 교과서 분배

교과서가 없이 공부하는 텐트학교 어린이들에게 지난 3월 말 JTS는 카불에서 교과서를 인쇄하여 나누어주었다. 그동안 세파라(코란)으로 공부하던 학생들이 파슈툰 알파벳 시험을 쳐서 알파벳을 아는 학생들에게 2차에 걸쳐서 교과서를 나누어주었다. 1차 시험 이후 알파벳을 모르던 학생들이 2주만에 알파벳을 익혀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서를 받고 아주 기뻐하였다.

● 카불 근교 사카르다라 마을, 다리 및 마을회관 공사에 노동력 제공하기로 합의

다리와 마을회관공사 지원을 사카르다라 주민들과 정식으로 합의하고 JTS는 자재를, 마을사람들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중 가장 큰비중을 차지하는 돌과 모래, 자갈을 마을전체의 공동작업을 통해 제공하면서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마을회의(쇼라)에서 결정하였다. 현재 여러 건설회사와 설계와 견적을 요청하여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국내소식

● 키르키즈스탄에 구충제 15만정 지원
고려인 이만여명이 살고 있는 키르키즈스탄에 2월 23일 구충제 15만정을 지원했다. 키르키즈스탄 공화국 보건성과 고려인협회에서 요청한 것으로 시골학교 어린 아이들과 빈민지역 노인들을 위하여 투약된다. 키르키즈스탄은 유치원에서 고등학교학생까지 40%~60%정도가 감염될 정도로 기생충 감염이 심각하다고 하며 하반기에도 더 많은 약을 지원받기를 요청하고 있다.

● JTS 사진전 개최



부산 해운대 정토법당에서 4월 6일부터 한달간 JTS 해외사업장에 대한 사진전이 열렸다. 인도 동계스와리의 초기모습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북한, 필리핀에서의 활동사진 60여점이 전시되었고, 개막식 첫날엔 소개영상과 함께 법륜스님

께서 직접 사진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전시회는 5월부터는 각 지역법당을 순회하며 계속된다.

● **봄 학기 대학생 자원봉사자 교육**



지난 3월20일 대학생자원봉사자 열명(한양대 7명, 동국대 2명, 이화대 1명)이 참석하여 각자의 소개, JTS안내와 소감 나누기 등의 교육을 받고 홍보부, 자원개발부, 실천사업부, 회원관리부, 총무부 등 각 부서에서 활발히 봉사하고 있다.

● **상근자원봉사 시작하는 홍세미님**

인터넷으로 JTS를 알게된 홍세미님이 국제협력단(KOICK)에서 9월에 방글라데시로 봉사를 떠나기 전까지 상근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다. 대학교 2학년 때 인도여행을 계기로 졸업과 동시에 해외자원봉사를 결심했다는 홍세미님이 JTS에서 더욱 알차고 값진 시간이 보내기를 바란다.

● **(주)디에스캠 창고 무상대여**



제이티에스에서 기업이나 개인 등을 통해 지원받은 물건을 보관할 해외 물류지원 창고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주)디에스캠 김응수대표이사님이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회사창고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었고, 물건 보관시에도 지게차 지원등 많은 도움을 주었다.

● **국내 노인잔치 진행**

국내복지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장학금지급과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는 제이티에스는 국내 노인사업의 시작으로 문경 원북리 경로잔치(4월 19일), 울주군 복안리 경로잔치(4월 29일)를 진행했다. 통도사견학을 겸한 이번 행사는 70세 이상 되는 노인 110여분이 참가했다. 또한 5월 26일 부산외국인노동자를 위한 행사로 불국사를 포함한 경주일대를 탐방한다.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4년 2월16일부터 2004년 4월20일 까지 입금하신 신규회원입니다.

북한어린이결연

조정순 211-11873-11
 최원종 211-11874-11
 김진숙 211-11875-11
 민희정 211-11877-11
 이종숙 211-11878-11
 민정기 211-11879-11
 이대식 211-11881-11
 손영숙 211-11880-11
 이숙지 211-11882-11
 이현화 111-03351-11
 김미선 211-11886-11
 김형규 211-11887-11
 최미연 111-02608-11
 송성기 211-11890-11
 김호건 211-11891-11
 조명순 211-11892-11
 오동욱 211-11893-11
 이재덕 211-11894-11
 윤현정 211-11895-11
 박승복 211-11896-11
 이지열 211-11897-11
 강시재 211-02352-11
 최락모 211-11898-11
 김경우 211-11899-11
 오현화 211-11900-11
 박연옥 211-11901-11
 박계화 211-11902-11
 신진화 211-11903-11
 최현희 211-11904-11

김지화 111-03345-11
 오갑성 211-11907-11
 김수현 211-11910-11
 장윤식 211-11911-11
 장옥순 211-11912-11
 이수연 211-11919-11
 윤정남 211-11913-11
 정상빈 211-11915-11

인도어린이결연

감산사 111-03340-14
 대각정사 111-03341-14
 이인구 111-03342-14
 김지원 111-03343-14
 해륜 111-03344-14
 김지화 111-03345-14
 김기자 111-03346-14
 오영자 111-03347-14
 이지영,이향석 111-03349-14
 정다운 111-03352-14
 황 석 111-03350-14
 김미경 111-02553-14
 양정아 111-03354-14
 김지영 111-03355-14
 박기연 111-03356-14
 김신원 111-03357-14
 장진희 111-03358-14
 황영숙 111-03359-14
 유재성 111-03360-14
 송민철 111-03361-14
 김재영 111-03362-14

장세은 111-03363-14
 이미영 111-03364-14
 나경호 111-03365-14
 이광숙3 111-03366-14
 도윤스님 111-03367-14
 신장호 111-03368-14
 서춘희 111-03369-14
 김현일 111-03370-14
 이철용 111-03371-14
 안무관 111-03372-14
 지안스님 111-03373-14
 윤희근 111-03374-14
 황수연 111-03375-14
 김진숙 211-11875-14
 정수걸 211-11875-14
 방애울 111-03376-14
 정용미 111-03377-14
 박선미 111-03379-14
 조은미 111-03380-14
 강은희 111-03381-14
 도명스님 111-03382-14
 정재욱 111-03383-14
 정영순 111-03384-14
 양강섭 211-11884-14
 최연화 211-11885-14
 김태근 111-03385-14
 최정윤 111-13388-14
 지용희 111-03389-14
 최순희 111-03390-14
 김동진 111-03391-14
 이종석 111-03392-14
 박보건 211-11906-14

윤동규 111-03393-14
 임성희 111-03394-14
 김소영 111-03395-14
 홍상은,홍주현 111-03396-14
 김태훈 111-03397-14
 채연정 111-03398-14
 류희원 111-03399-14
 방종석 111-03400-14
 이준우 111-03701-14
 소병준 111-03402-14
 최원종 211-11874-14
 김진숙 211-11875-15
 신진화 211-11903-14
 조금희 211-11908-14
 강현구 211-11905-14

인도결핵환자돕기

하기완 311-00289-13
 이동주 311-00290-13
 정윤한 311-00291-13

아프가니스탄 회원

최원종 211-11874-15
 김지화 111-03345-15
 김옥매 511-01090-15
 최미연 511-01091-15

특별후원금

2004년 2월1일부터 3월15일까지의 후원금입니다.

방 판 칠 300,000	배 영 미 500,000	박 창 재 1,000,000	박현순, 권교숙, 신보승,
유 지 학 150,000	유 재 연 150,000	김 보 미 1,600,000	조현주, 대원각, 박일순,
정 규 회 300,000	김 형 수 100,000	심 길 보 50,000	복송거사, 조현주, 오인숙
이 숙 임 100,000	전태선영가 50,000	조정주, 김민영 1,000,000	하 은 자 350,000
원 유 진 100,000	강 모 금 20,000	양 혜 진 164,160	무 기 명 3,000,000
양 윤 덕 20,000	연 산 중 1-9 69,710	혜 원 스 님 300,000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4년 2월16일부터 2004년 4월20일 까지 입금하신 신규회원입니다.

뉴욕특별후원금

2004년1월부터 4월22일까지의 후원금입니다.

최 경 숙	\$302.20	김 택 수	\$1200	최 만 성	\$100	고 창 금	\$20
이 연 숙	\$400.00	최 무 직	\$100	정 치 량	\$27.30	다글라스 sanders,양희경	\$257.25
김 총 진	\$600.00	콜롬버스불자회	\$1000	정 정 복	\$2500	페투리시아 levegue	\$100
김 연 문	\$120.00	강 선	\$200	김순영,민덕홍	\$65	김 성 순	\$20
고 복 순	\$115	윤에리카	\$100	최영태,김성순	\$60	민 덕 홍	\$20

LA특별후원금

2003년10월부터2004년2월29일까지의 후원금입니다.

전심전	\$100	하인경	\$150	박용선	\$40	강경애	\$50
-----	-------	-----	-------	-----	------	-----	------

물 품 후 원

2004. 2. 13 - 2004. 4. 19.까지 들어온 물품입니다.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대약품 어린이영양제 호빵맨 5,600정 2. 무주상 양말 1상자 3. 동아제약 어린이영양제 돌이박사 390,120정 4. 원명희 중근당 아목사실린캡셀500캡셀 2통, 아목사 펜캡셀1000캡셀 2통, 폴라비마이신연고450g 3통 5. 맹행일 노트수첩 3, 펜3자루 6. 동학사 양초, 향 10박스, 연필180, 노트100, 비누, 수건 1박스 7. 무주상 볼펜 43자루 8. 권민희 장갑4, 인형3, 양말9, 모자, 머리줄7, 머리핀 4, 어린이작은뺨 1, 저금통2 9. 김애경 자6 10. 박삼미 비누16개, 수건5개, 양말3개, 남여시계셋트1 11. 무주상 노트70권 12. 이정자 의류 12몽치 어린이의류 600여장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3. 운문사 정완스님 양말28, 수액연결세트 포함 1박스 14. 청암사 승가대학 런닝 27장 15. 피에티티 의류 11,347장 총 250박스 16. 수덕사 견성암 담요2장, 내복4벌, 목도리1, 수건9, 티셔츠5, 손수건4, 양말30 17. 무주상 비누12 18. 노숙경 필통2, 다이어리1, 수첩2, 지우개4, 지우개 셋트1, 연필셋트1, 연필49자루, 물통가방2, 재봉실4, 물통1, 19. 무주상 치약3, 칫솔2, 식용유셋트1, 양말21, 머플러2, 크리너1 20. 김민주 연필셋트6, 싸인펜셋트2, 메모장5 21. 무주상 치약4, 세수비누16 |
|---|---|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북한어린이를 위해 통일돼지저금통에 사랑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2004. 2. 1 - 2004. 3. 31까지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광주

대림불가마 사우나 19,390 박정우 12,730 빅마트두암점 20,320 빅마트두암점 39,950 엄창수25,150 엄창수 30,380 엄창수 12,510 소성한의원 49,880 영산포초등학교 6-3 95,300

대구

강승화 16,470 고광훈 42,510 고영주 50,980 권영순 60,470 김순녀 26,490 김순녀 42,020 김양모 25,190 김영수 28,740 김위숙 13,160 김경오 22,840 김진희 21,940 남외순 15,080 노영숙 34,450 동양슈퍼 6,920 무명28,740 무명 13,560 무명 20,880 무명 26,940 무명 18,870 무명 17,580 문영순 25,180 박용규 26,580 배재갑 16,900 백승원 34,190 손경희(수미광)68,870 손익성 9,400 송유은 19,160 송일스님 17,360 신동출 29,750 윤병욱 10,360윤채희 39,400 이광명화 32,860 이성임 22,480 이수미 26,260이수민 8,010이순옥(명심각)85,260 이승수 17,200 이익진 33,700 이청환 28,660 이주영 11,000 이주의 18,230 장금옥 23,840 전병덕 58,100전영희 15,570 중우스님 20,700 최영숙 24,100 최용근 49,310 최창주31,220 휴일스님 32,530

대전

갈매기해물탕 12,400 객영숙 25,000 김순용 12,140 김관웅 20,670 김남순 23,170 김미혜26,450 무명 2,700 무명 2,390 무명 1,810 무명 1,650 무명 1,450 무명 2,700 무명 2,650 무명 3,650 무명 1,550 무명 5,160 무명 3,890 무명 4,810 무명 5,560 무명 7,390 무명 5,030 무명 1,550 민해정 13,680 박상용 310 박완숙 2,930 배간영 21,100 백제정형6,410 서순임 18,140 선비식당 2,390 성진욱 2,690 손재학 4,750 연화심 7,470 오은지2,380 유기숙 28,660 윤미순 10,450 이귀용 30,830 이남숙 2,140 이부용 29,150 이옥희5,150 이경선 19,320 이경혜 14,560 이창화 25,660 정경주 24,480 정길수 13,270 중앙불교사 18,300 해물탕 3,550 김경남 23,870 김연주 29,640 김윤희 9,550 무명 1,140 무명10,550 무명 3,450 무명 1,760 무명 1,690 무명 25,900 무명 10,200 무명 4,350 무 명31,450 박영민 31,000 선이석 15,400 신광호 38,070 이근철 9,750 이동환 35,590 이호준 29,060 최리자 30,240 한형민 30,620 홍정표 27,000

마산

강민선 39,250 강지윤 21,250강혜원 12,570 김영환 14,160 김점남 22,220김형수 53,740노승학 7,000 동국내화 33,330 무명 7,970 무명 32,550 무명 20,160 무명 24,410 무명 50,190 무명 18,030 무명 20,260 무명 22,040 무명 9,520 문천수 20,000 보리수동산 11,880 신세현 41,120 신세원 30,670 안문호 10,270 안수진 13,000 안현자13,000 원광스님 28,860유남수 6,080 유말순 24,050 유말순 22,300 이선정 25,760 이정호 10,160 최재두 20,090 최효선 20,730 코대지 38,370

부산

강광자 20,200 강나혜 19,540 강종원 19,980 고창무 29,520 권근내 9,750 권영숙 23,200김동국,동영18,510김대훈4,890김수정 2,750김수현6,210김승우4,150김애리19,500김재욱22,110 김주지32,030류차승31,500 무명11,540 무명10,020 무명4,730 무명 10,440 무명 8,750 무명 18,970 무명 10,090 무명 34,290 무명 9,610 무명 11,190 무명 16,860 무명 15,010 무명 8,450 무명 7,180 무명 84,160 무명 1,360 무명 12,750 무명 30,740 무명 25,860 무명 21,380 박경숙 18,990 박석준 19,160 박석찬 21,130 박성연 8,400 범성 7,150 범성 21,800 범문주 82,200 범문주 135,700 범문주 96,150 범문주 83,400 범문주 89,120 서상갑 32,690 서혜영 11,960 송경주 50,000 신은례 7,520 오선 20,280 오은선 10,140 오정수 23,830윤문주,배수민 29,050 윤미선,조국서 58,020 이경선 26,550 이근호 15,130 이남선 33,370 이봉준 21,970 이상춘 7,570 이상현 5,330 이승선 23,200 이승철 17,200 이진석 23,820 이혜원 13,650 장산이 7,360 전향행 2,780 정근혜어머니 106,000 전진우 9,020 정나영 12,130 정정숙 18,520조국선4,730조혜숙28,670진숙희 71,030진인배 16,150 최광수 18,820최성희 16,520최성희 14,750최정봉 5,300추병우 15,840친환경실함실 7,970황순희 8,380 EKRNVF. 83 19,710 범문주 85,410 범문주 20,660 범문주 95,000 범문주 39,290 범문주 48,990 서창교 41,070 성영애 21,570 오성훈 27,650 정영숙 2,660 정지수 30,190 차은영 23,240 채화석 27,960 허성준 21,940 허성호 48,740 허영조 37,660 황춘석 16,330

서울

강명옥 1,000 강순영 1,300 강지영 27,920 경주귀비여행사 9,300 공해민 11,250 광봉준13,510 광영애 15,430 광명각 10,540 구순덕10,000 구용철 2,300 국민은행 남부티미날7,290 권경석 5,000 권구일 29,000 권석원 8,250 권오철 82,730 권오명 43,820 권오삼24,340 권정원 40,970 권혜숙 31,610 권혜진, 권도현39,790 길상원 37,850 김경숙 800 김구룡41,850 김남영



통일돼지 저금통 후원금 현황

북한어린이를 위해 통일돼지저금통에 사랑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2004. 2. 1 - 2004. 3. 31까지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28,350 김도진 14,150 김동연15,290 김만수 1,100 김명수10,000 김명철 600 김명희25,420 김명희8,740 김명희54,700 김민선 김
 호영 35,260 김민성10,270 김민성 15,810 김민호 39,310 김병남1,100 김봉숙 1,100 김상수 24,830김상순206,100 김선옥 1,650 김
 세희 32,370 김순희 2,060 김애숙 35,360 김애숙 37,130 김영순 1,500 김영애 1,100 김영희3,080 김월금 20,120 김월금 16,590
 김은숙 116,940 김은희360 합금실 2,600 김정구 21,730 김정실 2,400 김정실 20,000 김준용 24,870 김찬욱2,300 김창곤2,200
 김철석 2,000 김태균 21,660 김하영 1,000 김하옥1,000 김향25,240 김숙18,650 김현아 37,000 김현아 27,530 김현아 23,210 김
 해란 430 남산우15,930 노선혜 39,470 농협신 마산지점 17,490 리기은 1,000 무명34,860 무명 13,280 무명34,700 무명8,790 무
 명 13,980 무명 12,540 무명56,830 무명 25,400 무명10,490무명12,550 무명 11,860 무명 15,550 무명 29,400 무명15,000 무명
 35,710 무명1,000 무명10,000 무명 1,000 무명 720 무명1,000 무명 5,000 무명3,400 무명2,900 무명2,000 무명 2,200 무명
 5,300 무명 300 무명 800 무명 1,100 무명 23,530 무명 4,470 무주상2,800 무주상 3,000 무주상 2,000 무주상 900 무주상
 2,210 무주상 1,000 무주상 380 무주상 2,200 무주상 1,050 무주상 850 무주상 1,680 무주상 680 무주상 1,030 무주상7,000 무
 주상 3,400 무주상 1,900 무주상 2,100 무주상 2,300 무주상 4,100 무주상 1,000 무주상 4,300 무주상 20,000 무주상 1,200 무주
 상 2,180 무주상 1,000 무주상6,200 문옥선 1,300 문유영/장춘애 17,580 박강우 5,000 박경수 1,700 박명주 12,670 박명춘
 10,000 박미선 1,000 박상훈 433,020 박상훈 5,040 박생금영가 30,540 박영숙1,200 박영준 25,210 박영 3,250 박영화 3,050 박
 용호 1,000 박정남 14,130 박철 1,000 배정호1,600 서재운 10,460 성남중학교 19,570 소유화 25,000 손정숙 46,000 송병숙
 1,000 신문식 11,110 신미란 5,000 신민자 24,300 신민철어머님 22,370 신성희10,000 신영호1,900 신은정1,350 신주균 법무사사
 무소 32,920 신주균 법무사사무소 35,550 심명수6,710 심을택33,940 안명철1,800 안정환 25,660 양삼순 2,220 양실
 3,840 오용길 2,000 오임선 1,000 오정금 1,000 오택원 9,520 오호돌 9,450 운현경18,720 우연 12,800 우인보 19,890 우정
 10,300 유경희 2,500 유동근 50,000 유명석 1,510 유명숙1,200 유성현 47,270 유옥순 1,900 유정희 2,200 유진식품 4,840 윤광진
 6,350 윤금실2,000 윤영옥 1,400 윤석근 14,090 윤선재 53,170 윤정택 32,450 윤철근 2,680 윤학옥490 이경복2,000 이규자
 23,400 이길복 2,200 이길순1,000 이동주51,440 이동주28,530 이명숙 10,000 이명후 5,000 이상민 23,770 이상민 31,970 이
 상일 37,860 이상진 24,970 이순섭, 이기갑 37,000 이정옥 6,320 이종우14,680 이종렬2,100 이현숙 8,630 이홍기 13,360 이희숙
 1,350 임광철 2,700 임대혁24,800 임동애47,790 임소연 12,960 임순덕 32,520 임영주33,100 임은주 31,510 임희순 29,700 자원
 10,000 장명화 20,880 장미숙 1,150 장정희 27,220 장철호 2,700 전성지 26,070 전순영 5,660 전은희 550 전정란34,430 전영수,
 전상수 17,420 정세영 21,340 정세영 51,510 정영수 29,080 정윤한70,000 정윤환 22,500 정재영 10,000 조극철 1,400 조선금 허
 연희 3,000 조인석 1,300 조재민17,310 조정희 25,500 조정희 17,200 조현주 17,800 죽림정사 39,570 진명숙 14,600 차효영
 23,820 채진연 106,390 천세옥 4,500 청정월 24,210 최순옥 1,000 최은석29,670 최윤희 1,000 최정길 2,000 최현숙 27,420 탁기
 철 2,900 허영실 3,000 홍금화 4,000 황순옥 51,000 황영희 10,000 황옥순 11,200 황지나 25,160

울산 (11월 저금통내역입니다.)

강나현 6,290 강성현 6,190 강대금 49,040 김 청 1,240 김동수 900 김민선 16,300 김민지4,040 김정희 1,640 노유진 2,000
 무명 16,570 문진영 15,050 문진호 14,060 박복윤 14,860 서동범 20,630 서예지 750 심민규 1,240 안서경 15,940 오주희
 3,080 오해인 2,350 이선우6,310 이승현 2,670 이연지 6,250 이은경 9,360 이재남 1,350 이혜진 2,560 정유진 11,150 조성민
 2,030 최슬기 7,330 최승봉 700

청주

김수숙 7,360 김정자 20,290 류동연 37,100 민지혜월 10,000

거리모금 현황

2004. 2. 1 - 3. 31까지의 모금액입니다

광주 165,480 대구 4,810,780 대전 345,110 마산 946,240 서울 975,250 울산 2,541,750 청주 66,480



라진·삼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4년 4월 20일 현재

라진·섭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4년 4월 20일 현재



* 회색으로 표시된 곳은 현재 지정탁자가 없는 곳입니다. 위의 유치원·탁아소에 지정해서
후원해 주실 분은 연락주세요.

JTS 활동안내

▶ 인도 교육, 의료, 마을개발

- 수자타 아카데미가 위치한 동게스와리는 약 1만여명의 불가촉 천민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14개의 마을 유치원 1,200여 학생들에게 옷, 음식, 문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1개의 초등학교에서는 400여 학생들에게 급식과 학용품, 교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직업교육을 위한 소규모 기술학교와 청소년노동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 주민들의 무료진료를 담당하는 지바카병원은 매일 80여명 이상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으며 100여명의 결핵환자에게 약과 식사를 제공하는 결핵퇴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 동게스와리 16개 마을 1만여 주민들에게 식량, 의류, 담요 등 생활필수품 지원과 마을마다 핸드펌프를 파주고 있다.

▶ 북한 어린이 개발구호

- 라선시 탁아유치원 100여 곳에 0세-7세 어린이 1만여명에게 7년간 영양식품을 지원해 왔다. 100여개 탁아유치원의 낡은 장판과 이불 등을 교체해 주는 시설 개선사업과 라선시에 있는 50여개 진료소에 기초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지원한다.
- 라선시 협동 농장 400정보의 농업지원을 위하여 비료와 비닐을 지원한다.
- 함경북도 청진 고아원 어린이 4,000여명에게 밀가루와 내복 등 생활필수품을 지원한다.

▶ 아프카니스탄 어린이개발구호

-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칸다하르 IDP(자국내 난민) 캠프 2만여 주민 중 어린이들은 1만여명이다. 이 중에서 5천여명의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텐트학교를 지원해서 문맹 퇴치를 하고자 하며 림로즈 주 1만여명의 학생들에게 문구류 세트를 지원한다.
- 카불 근교에 주민들이 동참하는 여러개의 다리건설, 마을 진료소 건설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 필리핀 어린이개발구호

- 5개의 시골 마을에 11개 교실 건축과 한개의 도시에 장애인 학교와 기숙사 건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0여명의 학생들에게 문구류 세트를 지원한다. 앞으로도 남부 민다나오의 소외된 원주민 마을과 회교도 마을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가고자 한다.

후원금은

- ▶ **자동이체** 월 5,000원씩 1구좌 이상을 거래하시는 은행에서 통장으로 온라인 송금을 하시거나 자동이체를 하시면 편리합니다.
- ▶ **지로용지** 지로용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월1회 지로용지를 보내드립니다.
후원회원으로 등록하시면 각종 안내책자 및 사업보고서를 보내 드립니다.

후원물품 목록

나 라	세 부 품 목	금액/1인기준	수 량	
북한	어린이 영양식 1달 지원비	5,000원	10,000명	
	내복, 털신 (탁아·유치원, 고아원어린이)	10,000원	14,000명	
	노트, 크레파스등 문구세트	3,000원	10,000세트	
	탁아·유치원 1개 수리 (장판, 타일, 페인트, 이불등)	600,000원	99개	
	진료소 진료기기세트 (청진기, 혈압계, 체온계, 가위, 왕진가방, 핀셋, 기초의약품등)	300,000원	50개	
	결핵약 지원	70,000원	1,500명	
아프가니스탄	문구류세트 (노트, 연필, 필통, 지우개)	5,000원	15,000명	
	교복, 운동화	15,000원	15,000명	
	놀이기구(배드민턴, 축구공, 농구공등)	50,000원	20곳	
	재봉틀	36,000원	20대	
필리핀	학교 교실 1칸 (실경비 5백만원 - 지원비 2백만원)	3,000,000원	20개	
	문구류세트(노트3, 연필, 필통, 지우개 등)	5,000원	2,000명	
	교복	10,000원	2,000명	
인 도	수 자 타 아 카 데 미	신입생준비물 세트 (교복, 넥타이, 벨트, 가방, 비옷)	6,000원	150명
		1인 학비 (책, 노트, 학교 행사비등)	20,000원	405명
		책·결상 2인 1세트	40,000원	180세트
		유치원 교복 (셔츠, 바지/치마)	3,000원	400명
		학생 신발 (여름 슬리퍼, 겨울 운동화)	8,000원	405명
		겨울용품세트 (스웨터, 모자, 목도리)	7,000원	100명
		자전거 (상급생용)	50,000원	56대
		1달 급식비	5,000원	1,200명
		결핵치료비 (약값, 치료비, 우유값, 영양식등)	100,000원	100명
	구충제 (키르키스탄, 북한, 인도, 아프간포함)	100원	50만정	

*위의 목록 중 원하는 품목을 지정해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

최대원심 | JTS 총무부장

연일 회관 전체 전화 당번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반가운 전화가 왔다. 오래전부터 잘 아는 신흥사 성일스님이다. 처음 만난 우리에게 자상하게 배려해주신 고마움이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다.

유난히 빨강게 물들었던 단풍나무가 지금도 그곳에 있을까.

지난번 소식을 통해 인도 수자타 아카데미 어린이들이 맨발로 산을 넘어 온다는 글을 읽고 운동화를 사주라고 성금을 보내주셨다.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에 어려움이 많으실텐데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니 너무도 감사했다. 우리 사업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시는 이웃이 있어 보람을 느낀다.

때로는 홍보차원으로 보낸 돼지 저금통이 반송되어 돌아온 것을 보며 왠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고마운 소식들을 접하면 다시 힘이 솟는다.

종로구 견지동에 있는 길상원에서 정성스럽게 돼지저금통을 보내온 것이다.

북한의 어린이에게 조그마한 힘이 된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한통 한통 정성스럽게 전화를 하는 김희수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봄과 함께 서울에 피기 시작한 화사한 꽃들을 모든 이에게 보낸다.